

의안 번호	
----------	--

의결 사항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문(안)

제안자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연월일	2022. .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촉구 결의문(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안연월일 : 2022. . .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1. 추진배경

- 최근 방위산업은 방산 수출 활성화, 첨단 무기 국산화, 지자체 참여, 첨단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개방적 환경으로 변모 중.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를 통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제안이유

- 우리 구미시는 1969년 제1단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제5단지까지 조성된 내륙 최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 왔음.
- 경북 내 체계기업은 4개소(LIG넥스원(구미), 한화시스템(구미), 한화(구미), 풍산(경주))로 매출액이 대한민국 10대 체계기업 매출액의 36%를 차지하며 특히 구미는 50년 기술의 전자산업 인프라와 대구경북 관내 산·학·연·관·군 등 방위산업 관련 연계 가능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사업 선정 추진 시 성과 극대화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경북·구미 유치는 지방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사항으로 수도권 대기업 유출 등으로 힘든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지역 경기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도 새로운 황금기를 선사할 것임.

3. 주 문

- 결의문(안) : 붙임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안)

지난 50여 년, 우리 구미는 내륙 최대 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 대기업 유출 등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2,500여 개 기업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를 통해 방위산업을 통한 지역 자립형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구미를 포함한 경북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1.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역의 혁신적 변화를 바라는 기업과 지역민들의 수요에 응답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구미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구미는 현재 천만평 상당의 국가산업단지에 8만2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곳으로 단일무기체계 최대규모 수출을 이뤄낸 천궁Ⅱ계약, 구미시 산단 수출 296억불(전국 3위), 상생형 일자리 LG BCM 공장 착공 등 방위산업을 통해 미래 100년의 성과를 이어 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미는 2015년 국방 신뢰성 센터 유치, 2020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유치 등에 번번이 아깝게 실패하며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위산업을 통한 혁신적 변화,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반드시 구미에 유치돼 지역민들의 얼굴에 희망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2. 정부는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며 활기찬 대한민국을 열어 주십시오.

경북은 10대 체계기업 매출액의 36%를 차지하는 4개의 체계기업과 인근 대구를 포함 시 234개소 방산중소벤처기업, 341개 국방 신산업(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진입 가능 기업,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군 관련 시설 등 방위산업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는 수도권 대기업 유출 등으로 힘든 지역민들에게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활기찬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 구미시의회는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며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를 42만 시민과 함께 열망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합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구미 유치에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합니다.

2022. 3. .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